전북교육청, 추석 앞두고 학생안전관리 대책 수립

사전 교육·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 주문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추석연휴를 맞아 학생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일 도교육청은 추석연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석연휴 학생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에 안내했다.

안전관리 대책에는 귀성·벌초·성묘 등 추석연휴 기간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상황관리, 보고체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공사장, 축대·옹벽 등 재해취약시설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연구·실험실 약품관리 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벌쏘임·뱀물림·멧돼지 발견·진드기 물림 등과 같은 야외활동 관련 유의사항과 해외여행시 감염병 관련 유의사항, 식중독 예방요령 등도 안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청은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사고 보고용 전용메일(jbe119@jbedu.kr)이나 학생안전관리지원단(239-3119)으로 즉시 보고하는 24시간 보고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사전점검과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로 안전사고 없는 즐거운 추석연휴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중기청, 추석맞이 전통시장 활력 찾기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도내 6개 시 대규모 캠페인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20일 인파밀집지역에서 정부기관, 지자체, 상인회,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했다.

전북지방중기청의 차별화된 명절 맞이 캠페인(7회째)은 전지방중기청에 모범사례로 부각됐다.

또한, 올 여름철 무더위로 인하여 침체된 전북지역 전통시장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장상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참여기관은 전북지방중기청, 전북지방조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주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등 전북중소기업지원협의회(16개 단체), 전북기계공고, 지자체(6개시), 시장상인연합회(6개시), 소진공 지역센터(5개소) 등 33개의 기관단체가 대거 참여했다.

이날 캠페인 참가자들은 어깨띠를 매고 시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 홍보 리플릿(1,000여부)와 친환경 장바구니(300개)를 나눠주며 전통시장 방문 이용을 독려했고 관할 대표 전통시장을 방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명절 장보기 시장내 오찬 등을 병행하면서 전통시장 활력 찾기에 적극 앞장섰다.

특히, 다음 달 7일까지 실시되는 '전통시장 가을축제'와 10월12일~14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18 전국우수시장박람회' 행사 관련 자료도 나눠주며 전통시장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행사 참여를 독려했다.

전북지방중기청 김광재 청장은 "오늘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과 전통시장 이용, 2018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등을 알리기 위해 도내 대규모 현장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우리청은 매번 명절을 앞두고 지역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차별화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며, "캠페인을 통해 전북지역 전통시장에 고객 유입과 활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역 기관, 단체들은 물론 도민들께서도 전통시장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20일 인파밀집지역에서 정부기관, 지자체, 상인회,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펼쳤다.

NH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가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500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눔 활동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500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전달

NH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는 20일 민족의 고유 명절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500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부금은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으로 전달됐으며 이는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근 NH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장은 "상품권을 전달받으실 분들이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명절을 보내시기를 기원한다"며,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18일 임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으로 '추석맞이 사랑의 쌀 전달식'을 진행했고 이웃을 위한 훈훈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상품권으로 현금구매자에 한해 상시 5%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며 추석명절을 맞아 10월 31일까지는 개인별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 폴란드와 독일 명문대와 교류 확대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는 1364년 개교한 폴란드 최고 명문대학인 야기엘론스크대학(Jagiellonian University)을 비롯해 독일 최고의 기술대학인 RWTH 아헨대학과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대 윤명숙 국제협력본부장은 지난 9월 11일에서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럽세계대학박람회(EAIE)에 참여해 이들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 협약을 이끌어냈다. 전북대가 추진해오고 있는 신북방정책의 일환이다.

폴란드 야기엘론스키대학은 폴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다. 코페르니쿠스를 포함한 저명한 과학자들의 모교로 더 유명하다. 독일 RWTH 아헨대학은 독일에서 외부 투자유치를 가장 많이 받는 산학협력이 매우 우수한 대학으로, 올해 QS 세계대학 랭킹 144위를 기록했다.

전북대는 이 대학들과 앞으로 학생 등 인·물적 교류를 비롯해 학술 교류, 교직원들의 단기 프로그램 참여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남호 총장은 "우수한 유럽대학들과의 국제교류 증진을 바탕으로 전북대가 가지고 있는 연구 및 산학협력 자원을 극대화하는 기회가 됐다"며 "우리 학생들이 모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광곤도라 사전 예약제 시행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립공원 안에 자리하고 있는 부영그룹 계열 무주덕유산리조트가 10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주말·공휴일 관광곤도라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

매년 가을 단풍철과 겨울 주말이면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광곤도라를 이용, 국내 대표 눈꽃 산행지로 손꼽히는 덕유산 향적봉에 오르기 위해 인파들의 행렬이 길게 늘어선다. 관광곤도라를 타고 해발 1,520m 설천봉에 오르면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까지 20여분 만에 쉽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곤도라 이용객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주말·공휴일에 한해 인터넷 예약제를 시행해 왔으며 고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주민참여 제안사업 최종 확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19년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40개 사업을 발표했다.

20일 도교육청은 예비심사를 거친 80개 사업을 대상으로 온라인투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3개 분야 4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9월 3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온라인투표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주민이 참여해 총 3만4130표를 투표했다.

학생분야에서는 전주서신초 '건강한 땅을 지키는 꼬마 농부와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체험' 등 6개 사업이 선정됐다. 학부모분야에서는 군산성산초 '마을에서 놀자, 행복한 성산마을학교' 등 12개 사업이 선정됐다. 교직원 및 주민분야에서는 남원한빛중 'Ready action! 나도 영화감독 중3 영화만들기 프로젝트 등 22개가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최종 선정된 40개 사업을 대상으로 내년 2월 컨설팅과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학교에서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장은성 기자